

글쓰기 과목들의 전문성과 상호 관계

김난도*

1

*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
학부 교수.

많은 이들이 글쓰기라고 하면 ‘미문(美文)을 구사할 수 있는 요령’ 정도로 여기는 것 같다. 그렇지 않다. 글은 그 이상이다. 글을 쓴다는 것은 곧 사고하는 것이다. 글 속에 논리가 있기 때문이다. 학문적 글쓰기의 기준을 꼼꼼히 익히고 오류를 하나하나 피해가다 보면, 어느새 진리에 한 걸음 다가서 있는 자신의 학문 수준을 발견할 수 있다. 글쓰기는 꼭 ‘전달’을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학문하기의 중요한 일부인 것이다. 또 논리적으로 씌어진 글은 거의 예외없이 설득력을 지니게 된다.

설득력 있게 글을 쓸 수 있는 덕목이 비단 인문·사회 계열의 전공을 하는 이에게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자연과학·공학·예술 분야처럼 글보다 수식이나 작품으로 성과가 이루어지는 분야에서도 글쓰기는 여전히 중요하다. 화기인 김병중 교수나 자연과학자인 장회익 교수의 글을 읽어보라. 전문 지식이 없는 초심자들에게도 해당 학문의 고갱이를 차근 차근 전달하는 그들의 설득력 있는 글을 읽고 있노라면, 소중한 지식과 함께 잔잔한 감동까지 가지게 된다.

2

서울대학교는 글쓰기의 중요성과 심도 있는 글쓰기 교육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2004년 2학기부터 글쓰기 교과목을 정규 과목으로 개설하였다. ‘인문학 글쓰기’, ‘사회과학 글쓰기’, ‘과학과 기술 글쓰기’의 세 과목(총 9~12강좌)으로 출발한 이들 교과목은(이하 ‘글쓰기 교과목’이라 칭함) 단순하게 글을 쓰고 논문을 완성해나가는 기술만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학문 분야에 속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작문’ 교과목과는 구별된다. 원활한 토론과 첨삭 지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수강 인원을 25~30명으로 제한하였고, 박사과정 재학 이상의 조교가 강의를 보조하였다. 다른 신설 과목 개설의 사례에 비추어본다면 상당한 투자라고 여겨진다. 이제 첫걸음을 내딛은 강의 운영에 대해 진단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강의 평가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 ‘글쓰기 교과목’에 대한 강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 2004년 2학기 강의 평가의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과학 글쓰기’와 ‘과학과 기술 글쓰기’ 과목의 강의 만족도가 각각 5점 만점에 4.93과 4.84로, 전체 교과목 중 1, 2위를 차지하였다. 괄목할 만한 성과이다. 이처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된 데에는 물론 강의자와 조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일차적인 공이 있을 것이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힘들게 따라가기는 했지만, 강사와 조교의 도움이 컸다’고 밝히고 있다. 강의 만족도가 높은 또 하나의 이유는 수강 인원이 적어서(과목당 5명) ‘개별화된’ 지도가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수강 소감을 살펴보아도 더 많은 독서 과제, 더 잦은 토론, 더 깊은 첨삭 지도에 대한 요구가 대부분이었다. 많은 학생들은 더 많은 과제가 부과되더라도 한층 개별화된 지도를 통해 자신의 글쓰기 능력을 함양하기를 진지하게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글쓰기 강좌’의 만족도가 높다면, 더욱 많은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 예로 학생들의 수요에 걸맞는 개별화된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 강좌의 수강 인원을 제한하고 많은 수의 강좌를 개설해야 한다. 그러나 제한된 학교 예산을 고려할 때 강좌의 수를 대폭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 효율적인 강의 인력 운용, 예산의 가용 범위, 글쓰기 교실의 보편성, 개별화된 지도에 대한 네 가지 요구의 접점을 찾아가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

3

제한된 강좌 개설 범위 내에서, 더욱 많은 학생이 수강하면서도, 더욱 개별적인 지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한가? 해법은 기존의 교양과목인 ‘대학국어’, ‘글쓰기 교과목’, 그리고 교수학습개발센터의 ‘글쓰기 교실’에서 운영하는 여러 프로그램 간의 효과적인 연계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 연계의 첫 단계는 삼자의 관점에서 강의 목표, 강의 구성, 교과 운영 방식을 통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역할 분담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대학국어’ 교과목은 모든 단과대학에서 교양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각 강좌의 정원은 30명으로 모두 60강좌가 개설되고 있다. 강의 계획서에 의하면 ‘대학국어’는 ① 독해와 작문의 이론적 측면, ② 한자어 어휘력, ③ 학생의 실제 작문과 발표, ④ 토론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며 한자어 익히기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면 ‘글쓰기 교과목’과 기본적인 강의의 구성이 같다. ‘글쓰기 교과목’은 대체로 ① 작문, 논문 구성, 계획서 작성, 인용법 등에 관한 일반적 강의, ② 기본 문헌에 대한 독서, 서평 및 논문(계획서 포함) 작성 등 과제 수행, ③ 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 ④ 코멘트와 첨삭 등 개별적인 지도의 네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특히 ③, ④ 항목은 수강생의 개인적 요구도, 수준, 문제점에 따라 정확한 진단과 개별화된 지도를 수행하는 가장 핵심적인 국면이라고 하겠다. 교

수학습개발센터의 ‘글쓰기 교실’은 ① 방문 및 이메일을 통한 글쓰기 상담, ② 리포트 및 글쓰기 관련 과목 특강, ③ 글쓰기 관련 자료와 교재의 개발, ④ 각종 워크숍의 개최, ⑤ 핵심교양과목 T. A.에 대한 침삭 지도 교육 등을 통해 정규 교과목을 보완하고 있다. ‘글쓰기 교과목’과 ‘대학국어’ 그리고 ‘글쓰기 교실’이 상호간 유기적인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다면 더욱 효율적인 방법으로 글쓰기 교육을 실현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국어’는 필수과목으로서의 기초적인 글쓰기 관련 이론과 강의를 통한 교수가 가능한 개괄적인 영역을 담당하고, ‘글쓰기 교과목’은 세분화된 주제를 가진 글쓰기 교과목을 통해 개별화된 토론 및 침삭 지도를 하는 것이다. ‘글쓰기 교실’은 정규 교과목의 이수율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연하게 당시의 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므로 학위 논문, 외국어 논문, 기타 특별 주제에 대하여 풍요한 자양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4

이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들 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기초교육원 교수학습개발센터 국어국문학과 등 글쓰기 교육과 직간접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기관 상호 간에는 물론이고, 또 각 실제 학문 영역을 담당할 각 단과대학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매우 필요하다. 앞으로 핵심교양 영역에서의 리포트 평가에 일반적 평가뿐만 아니라, 글쓰기 지도의 개념이 포함된 침삭 지도가 가능해진다면 매우 효과적인 글쓰기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체계를 잡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서울대학교의 ‘글쓰기 교과목’과 교육학습개발센터의 ‘글쓰기 교실’의 활동은 매우 성공적인 출발을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도 학내의 다른 교과목 및 기관 간

의 적극적인 연계와 협력을 바탕으로 그 교육 효과가 극대화되기를 희망한다. 